

불교, 과연 서구문명의 대안인가

불교 등 동양사상은 현대 서구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론이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의 이론적 근거를 여기서 찾고 양자를 접목시키려는 노력 또한

다양하다. 동·서양 사상과 문화의 비교 연구를 해온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가 4일 개최한 춘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불자의 관심을 끌 만한 논문 세 편을 소개한다.

동서 비교문화학회 춘계발표회 주요논문 내용 요약

미국의 불교 붐

류향태 동덕대 교수



1879년 영국인 아놀드가 쓴, 석가모니의 삶을 다룬 책 <The Light of Asia>는 미국에서 80만, 영국에서 60만을 기록하며 100만부나 팔려나갔다. 이발소에서라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나라 종교 철학, 다시 말해 사색의 대상으로 미국 지식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다. 류 교수에 따르면, <The Light of Asia>에서 아놀드는 기독교 독자의 구미에 맞게 석가를 묘사했다. '니르바나(열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라며 무신론적인 면을 제거했고 미국인의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생략했다. 대신 진리 탐구자의 모습을 한 석가를 묘사하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와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의 반대 등 미국 문화의 특성에 맞게 석가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종교로서

동양담론은 공허한가

박경일 경희대 교수



최근 한국의 동양철학 전공자와 인문사회 연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오늘의 동양사상> 2002년 봄호를 보면 이들의 80%가 동양철학이 현대문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

된 김진석 교수(인하대)의 '동양담론의 공허함'이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동양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동양 철학의 실체를 부정하고, 노자와 해체론의 접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 사건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간의 갈등과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확고 태도 및 방법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을 새삼 반성해 보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박 교수는 "동양에서 발생한 도가와 서양에서 발생한 해체철학 간에 어떤 유사성들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비교해 볼

'연경별찬' 통해 본 김시습 문학·사상

이기운 경희대 강사



'심유적불(心儒蹟佛)', 즉 '마음은 유교이고 행동은 불교'라는 평가는 설장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일까? 이기운(경희대 강사) 씨의 대답은 아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는 설장이 남긴

해석하고 있는 설장 김시습의 불교사상은 선사시대에도 발화, 화엄에 관한 저술을 남긴 함허득통(1376-1433)에 이어 조선초기 불교사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표적 저서 가운데 하나인 <연경별찬>에서 설장은 <법화경>의 일불승(一佛勝) 사상이야말로 선(禪)의 증오(證悟)로 가능하며 법화를 선으로 회통하고 있다. 즉 설장은 선적 진리체계 속에서 법화의 제법실상이 그대로 체득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교일치를 주장해 온 의천이나 지눌의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믿음의 대상 아닌 종교철학으로 접근

'기복' 먼저 소개됐으면 불 없었을 것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난 불교 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류향태 교수(동덕대)는 이러한 불교 붐의 배경에는 미국 지성계가 협동하여 불교를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종교나 믿음의 대상으로서 다가간 것이 아

의 불교보다는 윤리적, 도덕적, 과학적인 모습의 불교를 강조했다.

류 교수는 "불교에 매혹된 자들은 미국의 지성인이자 대중이 아니다"며 "만약 대중의 기복적, 주술적 면이 먼저 소개됐더라면 19세기 말에도 불교 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범위 학제간 교류협력 필요성 절실

서양, 동양철학·해체론 비교연구 활발

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타학문의 대화 부족, 현대적 해석에 소극적, 대중과의 호흡 부족 등을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박경일 교수(경희대)는 이 가운데서도 학제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해 불 <교수신문>에 게재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고 묻고 "서양에서는 유희도를 망라하는 동양철학과 해체론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본고장이라 할 우리 나라(동양)에서는 외면되고 경시되고 있던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며 학제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2200수·100종 저술 남긴 산승

조선초기 불교사상사적으로 큰 의미

2200여 수의 시(詩)와 100여 종의 저술 가운데 인간의 심성을 다룬 시문과 비교적 유교적 경향의 잡서들을 기준으로 한 편파적인 주장이다. 그보다는 일생을 유행행각하며 수행과 저작에 전념한 산승(山僧)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엄과 법华的 교학을 선(禪)으로

결과적으로는 조선후기 통불교적 조계종의 전단계로서 중요한 불교사상사적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씨는 말했다. 덧붙여 이 씨는 <연경별찬>의 편찬시기는 학계의 통설인 29살이 아닌 <화엄일승법계도주> 등을 지은 40대 초로 봐야 한다는 설을 지지했다.

선림원은 한국선종의 태동지

권기중 교수 "화엄종으로 출발, 염거화상에 선종 변모"

'하늘 아래 끝없는'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구에 자리잡은 선림원(강원도 기념물 53호)은 진전사지(강원도 기념물 52호)와 더불어 우리 나라 선종의 개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폐사지이다. 도의 선사의 전법제자인 염거화상이 주석했고, 염거화상의 제자이면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체징이 수도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절터에는 초기 선종 미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444호)과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비(귀부 및 이수(보물 446호) 등이 전한다. 또 1985년 동국대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시대 당시의 가람배치가 그

대로 남아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미술연구소(소장 문명대)가 4일 개최한 '양양 선림원의 사상과 불교미술' 학술대회는 바로 선림원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학술대회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불교사적으로 볼 때 선림원지는 화엄종 사찰이 선종 사찰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화엄종 승려들이 선종으로 이적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홍각선사 비문을 통해 본 선림원'을 발표한 권기중 교수(동국대)는 신라의 대표적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802년)를 세운 승운이 2년 뒤 선림원 범종 주조에 상화상(上尙和)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선림원이 화엄종 사찰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강원도 기념물 53호) 근경.

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전사에서 도의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염거화상이 선림원(역사상으로 옮겨와 체징에게 법을 전하면서 선종 사찰로 변모했고, 870년 홍각선사가 대대적으로 증창했을 시기에 완전히 선종화되었을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선림원(역사상은 염거와 체징, 홍각에 의해 초전선법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선종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전시된 국보 104호 염거화상탑.

염거화상탑(국보 104호)은 원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장리 흥불사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반출하려다 실패한 이후 지금의 경북군 도로 옮겨왔다. 그러나 원주 흥불사지를 살살이 조사한 미술사학자들조차 이 탑의 원래 자리가 흥불사지였다는 근거는

"염거화상탑 원위치 중헌암지 가능성"

이순우씨 조사보고서 주장

찾지 못했다.

그런데 한 아마추어 문화재애호가 염거화상탑의 원래 위치를 추적한 책을 출간해 화제다. 이순우 발류투자지문화사 사무가 최근 펴낸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늘재는 일제강점기때 강제로 옮겨져 현재 경북군 내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구역에 전시 중인 석조문화재의 행적을 추적한 책이다. 문화재에 관해서는 '뒤로도 모르는' 이 씨는 주말마다 국립중앙도 서편과 국회도서관을 들락거리며 관련 기록을 찾고, 현지 답사를 통

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 문화재의 이동경로와 시기, 그 이유를 추적했다.

2년여 노력 끝에 이 씨는 이마니 시류의 고적조사보고서 기록을 토대로 '염거화상탑은 원래 경기 가평의 중헌암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또한 천수사 삼층석탑은 원래 가마지삼층석탑 중의 하나였던 것이 박물관 수장품 카드의 작성과정에서 빚어진 오류 때문에 천수사 석탑으로 등재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실상은 영천사지 삼층석탑 혹은 영천사지 삼층석탑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밖에도 진경대사탑비, 보원사지 절물, 법천사 지공국사현묘법에 대해서도 위치이동과 그 시기 및 배경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1만2천원.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opia.com

佛經漢文教育科

▶ 男·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7월 5일 ~ 8월 15일 (기간업수)
 2. 募集課程
 - 大學院 과정
 3. 教育科目
 - 무량외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教育期間 ● 3년 (6학기)
 5.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 1회 출석특강
 6. 卒業惠澤
 - 수확증서 수여
 - 불경한문강사 자격증 수여 (심사 합격자)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 (무료)
-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法華三部經講院
책임교수 崔光永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053)952-8711 · 017)501-8711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아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精

-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성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 생인정은 일부는 달고 일부는 툭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늘어납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볼레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일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활기 회복이 됩니다.
- 기전피부가 고아됩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졸음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강파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복용분과 비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성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p>추복</p> <p>정장복 (50%)</p> <p>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p> <p>2. 2종 방 W110,000</p> <p>3. 3부방 W120,000</p>	<p>범복</p> <p>정장복 (50%)</p> <p>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p> <p>2. 2종 방 W110,000</p> <p>3. 3부방 W120,000</p> <p>※ 순면(무지 있는 맥문) W130,000 ※ 바지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W130,000</p> <p>※ 장삼, 가사, 바상 및 기타의류는 맞출수 있습니다</p>
---	---

해동승복
대구 고서터미널 4층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의소식 圓梵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歸依三寶 하옵고,
諸方寺庵 佳持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世上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發願!!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佛巖寺 梵鐘에
自動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四時節 朝夕禮佛 時間과
正午에 人跡이 있고 없고,
크나큰 鐘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圓梵音이 三世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울려 퍼져
모든 衆生苦는 사라지고
解脫의 法悅이 充滿함이며!!
寺中外護와 佛事に 餘念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의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불기 2546壬午年, 오월, 단오.
부영공업사 대표 신현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P : 011-369-2732